

전남대병원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 시대' 연다

사업비 9629억 책정... 2034년까지 1070병상 규모 원격 중환자실·실시간 위치정보 등 IT 기술 도입

전남대학교병원 새 병원 건립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30일 전남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전남대병원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 신축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사업은 광주 동구 하동에 위치한 대학병원을 재건축해 1070병상 규모의 새 병원을 건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전남대병원은 건물들의 평균 사용기간이 45년이 넘어 매년 300억원의 수선비용을 지출함에 따라 새 병원 건립을 추

진했다.

지난해 2월부터 예타 조사에 들어갔으며, 총 4차례 질의 과정을 거치며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당초 전남대병원은 1조214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300병상, 연면적 27만㎡로 병원을 건립하겠다는 구상이었으나 사업비 1조1438억원, 1070병상, 연면적 22만㎡ 규모로 축소했다.

병상 수를 줄이는 대신 임상실습·수련 교육 등 교육시설과 기초 및 중계연구·바이오헬스산업 등 연구시설 등을 대폭 늘려



전남대병원 새병원 조감도

차세대 의료·연구 역량을 구축할 계획을 세웠다.

전남대병원은 이 같은 계획을 기재부 최종 심사에서 발표했으며, 이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게 되면서 새 병원 신축에 속도를 내게 됐다.

지에 1·2단계로 나눠 건립된다.

새 병원 1단계(동관 건물)는 2030년까지 전남대의 학동캠퍼스와 전남대 간호대학 부지에 900병상 규모로 신축 건물을 완공한 후 주요 진료기능과 수술실, 권역응급센터 등 병원 대부분의 기능을 이전한다.

2단계(서관 건물)는 2034년까지 1동·2동·3동·5동 및 제1주차장을 철거한 뒤 해당 부지에 170병상, 교육·연구시설, 첨단 의료사업화지원센터 등의 기능을 담은 건물을 신축해 개원하게 된다.

특히 중환자실 통합상황실을 구축해 원내와 협진 의료기관 중환자실 생체 징후·응급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원격중환자실 시스템'과 직원과 환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실시간 위

지정보 시스템' 등 스마트병원으로서 다양한 의료 IT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부족한 필수요료를 확충하기 위해 응급실 및 중환자실을 대폭 확충한다. 권역 감염병전문병원과 연계한 감염병 즉각 대응체계도 구축하게 된다.

정신 전남대병원장은 "지역 의료를 살리는 새 병원 건립은 지역민의 오래된 숙원 사업으로 수도권과 벌어지는 의료격차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며 "지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조기완공 목표로 준비해 갔고,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적인 역할과 환자중심 의료를 실현하는 전남대병원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30일 장성 옐로우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제33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환영 리셉션'에서 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전남도장애인체육대회 장성서 막 올라

'벽을 넘어 다함께, 하나되어 힘차게' 1만 5000여명 참석

제33회 전남도장애인체육대회가 30일 장성 옐로우시티 스타디움에서 화려한 개회식과 함께 3일간 열린다.

5월 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남도장애인체육대회는 "벽을 넘어 다함께, 하나되어 힘차게"라는 구호 아래 22개 시군과 21개 경기단체에서 1만 5000여 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전남도장애인체육대회를 처음 유치한 장성군은 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추진위원회를 발족, 자원봉사자 운영과 안전 대책 등 준비를 철저히 했다. 대회 기간 21개 종목으로 나눠 열린 경정이

펼쳐진다.

특히 올해는 전남도장애인체육대회 역사상 최초로 야외 개회식이 진행됐다.

장성군 옐로우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개회식은 '화합의 바람'을 주제로 장성국악협회 농악 공연과 상무대 군악단의 연주로 시작했다.

공식행사는 '새시대, 새도약'을 주제로 22개 시군 선수단 입장, 개회선언, 대회기 게양, 개회사, 축사, 선수·심판 대표 선서, 성화 점화 순서로 진행됐으며, 이어진 축하공연에선 박서진, 광영광 등 인기 가수 무대를 비롯한 다양한

공연으로 관람객 모두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남도는 더 좋은 환경에서 훈련하도록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반다비 체육센터 확대 등 지원에 적극 나설겠다"며 "장애인 체육선수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한전, 포스코, 쿠광 등 기업 취업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정현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제33회 전남도장애인체육대회 장성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함께 힘써주시는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전남 장애인체육 발전과 모두가 함께하는 스포츠 문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2025 국제농업박람회 입장권 할인 판매

사전예매 최대 30%... 행사장서 사용 가능 쿠폰 제공

(재)전남도국제농업박람회는 2025 국제농업박람회 입장권 사전예매를 시작, 30% 할인 혜택과 함께 행사장에서 사용 가능한 쿠폰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전남도국제농업박람회는 오는 10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나주 산포면의 전남농업기술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인공지능(AI)과 함께하는 농업혁신, 생명 키우는 케이(K)-농업'을 주제로 미래 농업의 비

전과 혁신 기술을 선보인다.

박람회에는 국내외 350여 기업과 단체가 참여해 농업 관련 최신 기술과 혁신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우수 농산물 수출 상담 및 다양한 전시와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관람객의 전남 여행 활성화를 위해 전남 주요 관광지와의 연계한 입장권 할인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이를 통해 박람회

참여와 함께 전라남도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사전에 예매하면 일반권 7000원, 청소년권 6000원, 어린이권 2000원으로 구매할 수 있다. 최대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행사장에서 사용 가능한 3000원 상당의 쿠폰도 제공한다.

9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오프라인 사전예매에선 일반권 할인만 가능하다.

5월 중순 이후 인터파크와 박람회 공식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판매에선 일반권, 청소년권, 어린이권 모두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전남 해양배터리 데이터 기술, 내년 예산연계 선정

2030년까지 총사업비 250억 규모... 관련 사업 본격 육성

전남도의 '해양배터리 데이터 허브 플랫폼 기술개발'이 2026년 예산 연계사업으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산하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는 30일 화순 국가면역치료혁신센터에서 류광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위원장)과 박창환 전남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각 시·도 부단체장, 관계부처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회의를 열었다.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는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위원장으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교육부·과기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다. 지역 과학기술 정책과 사업을

조정·협업하는 기능을 한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약 30조원 규모의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총괄하며, 예산 배분과 조정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성과 전략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날 회의는 2022년 협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개최돼 국가 연구개발의 지역균형발전과 지방 과학기술 진흥이라는 협의회 설립 취지를 실현하는 상징적인 계기가 됐다. 특히 정부의 R&D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과학기술 기반이 열악한 전남에서 열려 더욱 의미가 크다.

회의에서는 지역별 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 결과 및 지원방안, 지자체 2026년 예산 연계 사업 선정 결과(안) 등 주요 안건

이 논의됐다.

특히 지자체 2026년 예산 연계 사업 선정 결과(안)에 전남도가 제안한 '해양배터리 데이터 허브 플랫폼 기술개발(2026~2030년·총사업비 250억원)'이 포함됐다.

해양배터리 데이터 허브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은 과기부가 2026년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창출된 연구 성과를 지역 기업과 산업에 확산시켜 관련 산업을 본격 육성할 방침이다.

박창환 부지사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 등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지방의 잠재력을 살린 지역 주도 R&D가 국가와 지방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현재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된 정부 R&D 예산이 지역으로 고르게 배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더욱 특별하고 품격 있게. 잊지 못할 순간으로 -

HOTEL 아트하임

VIP CLUB 무기명회원 모집

상담문의 062.415.7330

| 혜 택 | Vvip 1천만 (3년) | Vip 4백만 (1년) |
|---------|---|-----------------------|
| 숙 박 | 연40박 (한시적), 추가 숙박시 주중 30% 주말 20% | |
| 조 식 | 숙박시 조식 2인 무료(연 36매) 추가 증정 | |
| 사 우 나 | 무료 사용 | |
| 피 트 니 스 | 무료 사용 | |
| 커피숍 | 커피 50% 할인, 기타음료 20% 할인 | |
| 골 프 대 회 | 그린피 무료, 시상식, 연 1회 | |
| 컨퍼런스룸 | 연 10회, 1회 타임 3시간 무료 사용 | |
| 연 회 장 | 10% 할인 | |
| 웰니스프로그램 | 전문의 초청 건강세미나 연 2회 | |
| 광 남 일 보 | 기업탐방 및 오피니언 리더 특집기사 연 2회 전문 이미지 광고 광남아카데미 초청 강연 연 10회 (석식제공, 사전예약) | |
| 광주버스 방송 | 광주시내버스 내부 모니터(버스 1대당 모니터 2대) 20대 12개월 / 50대 4개월 / 100대 2개월 | |
| | 3년 3회 제공 (4,800만원 상당) | 1년 1회 제공 (1,600만원 상당) |
| 월간지전라도인 | 3년 무료구독 | 1년 무료구독 |

(주) 호텔아트하임 멤버십 클럽은 지역정문지 "광남일보" 종합광고대행사 "에드하임"이 함께합니다.

★ 대면회장(150명) / 소면회장(30명) /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운영
(주·별첨리뷰호텔)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예약문의 062)236-5881